



2017년 05월 용덕 정선 한비 주비 태곤의 들꽃 이야기

- ♣ Kumlubel Mah. Esenli Sok. No:118 B. D:7  
Görkem çiçek apt. Tepebaşı. Eskişehir. Türkiye
- 김용덕 90-553-058-7524 nukuke21.tm@gmail.com
- 한정선 90-535-669-1285 anahan.kim@gmail.com
- 집: 070-4643-2443 <- 한국에서도 바로 전화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샬롬! 소아시아의 축복의 등로 사역동역자님께

**올** 5월은 그간 느껴보지 못한 감동과 기쁜 소식에 고국에 대한 무거웠던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참여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참 정치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하며 새벽 기차를 타고 앙카라에 가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의 새로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며, ‘이런 일들을 다 볼 수 있구나!’ 촛불 집회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은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듯 합니다.

**사**실 “당연히” 국민으로서 국가 지도자에게 기대했던 일들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잊혀져,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모두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눈을 낮추어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고,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는 모습은, 대다수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일’들이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자세’였는데, 어느덧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다른 기독교인과 같이 욕심과 편견과 고집이 가득한 집단으로 인식 되고 있어, 고난이 아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의로움 보다는도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종 됨을 잊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땅히 가야할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당연한 일들을 마땅히 감당하는 동역자님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신 후 이천 십칠년 오월에 ES에서 김용덕, 한정선, 한비, 주비, 태곤이 소망의 마음을 전합니다.

@ 떠날 사람은 떠나고, 돌아올 사람은 다시 돌아 오고...

**모**든 사역자들이 공통적인 아픔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사역자로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여 얻은 새 신자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자라다가 끝내는 서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Y’형제: 저희가 다닌 현지 교회는 미국 사역자가 5년 동안 키워온 ‘Y’라는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고, 자라고, 조금씩 사역에도 참여를 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는 전도사처럼 미국 사역자가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장래 목회자로 세우려고 ‘스타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Y’ 형제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전임 사역자를 꿈꾸고 있기도 해서, 1년 동안은 ‘스타지’

로 훈련 받으면서 전임 사역자의 삶을 경험하며 준비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최소 임금이라도 후원하고 있었고, 그것에도 감사하며 섬기는 형제 가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권도 도장을 여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터라 잘 훈련되기를 바라며 격려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의 훈련도 마치지 못하였고, 안탈랴로 휴가를 가서는 갑자기 그곳에서 살겠다고 돌아오지 않겠다는 연락만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론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구나를 배웠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다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M'자매 (이즈밀에서 아내가 잠시(1년) 양육했던 자매.)

훗 어머니와 외갓집 친척들의 핍박 아래 잘 버텨내고 자라온 자매입니다. 지금은 이스탄불 저희 회사 새로 개업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 순모임과 성경 캠프 때 배웠던 말씀에 대해 많이 그리워 하기에 결국 인터넷으로 성경 강해를 시작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표로 하고 매주 2시간씩 화상 강의를 합니다. 인터넷 사정에 따라 변수들이 생기기엔 집중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배우려는 그 마음이 변함 없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주 태권도 도장은 오늘도 감사입니다!

-엣그제 드디어 노동 비자 신청이 마무리 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큰 서류 관련 일들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한달에 한 명씩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승급 심사가 있고, 지난 달에는 피크닉도 함께 가서 학생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도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기적 같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지 못했던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태권도 도장 수입	태권도 도장 지출	잔액 및 비교
1월	+도장 후원: 1000 TL +도장비(5명): 500 TL	-회무사: 100 TL -공과금(전기,가스): 442.02 TL -세금: 1179.04 TL	1500-1721.06= - 221.06
2월	+도장 후원: 500 TL +도장비(6명)+심사: 900 TL	-회무사: 100 TL -공과금(전기,가스): 44.10 TL	1400-144.10= 1255.90 *2월까지 도장 월세는 미리 지불 했습니다.
3월	+도장 후원: 500 TL +도장비(6명): 600 TL	-회무사: 100 TL -도장월세: 460 TL -도장 시설(철봉): 650 TL -공과금(전기,가스): 56.46 TL	1100-1266.46= - 166.46 *3월 월세는 도장 보수로 미리 지출 된 재정을 집 주인이 월세에서 제하기로 해서 빼고 남은 재정입니다.
4월	+도장 후원: 700 TL +도장비(9명)+심사: 1600 TL	회무사: 100 TL -도장월세: 1501.50 TL -공과금(전기,가스): 86.57 TL -세금: 1158.90 TL	2100-2846.97= - 746.97
5월	+도장 후원: 500 TL +도장비(5명): 800 TL +모자란 재정 입금:1350 TL (저희가 입금함)	-회무사: 100 TL -도장월세: 1501.50 TL -공과금(전기,가스): 82.10 TL -사범 급여 및 보험: 787.67 TL	2650-2492.77= 157.23 * '사범 급여 및 보험'은 도장이 저에게 줘야 할 재정인데, 저는 받아서 다시 '모자란 재정'을 채워서 다시 입금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 37-40]